농업문화 전시·체험·힐링…도민들의 '행복 놀이터'

전남도 농업박물관

부지 3만6천㎡로 국내 최대 규모
실감체험형 헤리티지 팜 7월 운영
주말 농부장터 봄·가을 확대 운영
매년 쌀 요리·연 날리기 경연대회도

농업박물관이 지난 2021년 새로운 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주말 농부장터. 올해부터 봄·가을철 8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봄철에는 지난 4월 2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5월까지 격주로 총 4회 운영된다.

지난해 봄 농업박물관의 모내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모습. 농업박물관은 농도 전남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전통 농경문화의 보존과 전시를 그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농경문화가 꽃피운 전남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남의 전통 농경 문화유산을 연구·수집·보존·전시해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이해시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3년 9월 24일 영암군 삼호읍에서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했다.

부지 면적만 3만6922㎡에 달하며, 건축면적은 6368㎡, 전시면적이 2423㎡다. 전시 공간은 농경문화관, 남도생활민속관, 쌀 문화관,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경문화체험관, 농업테마공원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농업문화 실감체험 플랫폼'XR 헤리티지팜' 구축=농업박물관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실감체험형 헤리티지 팜'을 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쌀 문화관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흙을 만질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을 조성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재배해서 수확하는 가상농작물 재배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콘텐츠(인터랙티브 미디어 월)도 조성한다. 정적인 유물 전시의 한계를 벗어나 스토리와 AR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학습 콘텐츠를 구축해 놀이와 학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계 곳곳의 박물관과 전시관들이 미디어 아트나 실감미디어 기술을 적용,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흐름에 맞춰 농업박물관은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건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 아이들을 위한 주말 농부장터 확대 운영=농업박물관은 지난 2021년 새로운 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주말 농부장터를 봄·가을철 8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 농부장터는 농업박물관과 영산호관광지에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신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기획됐다. 지역 농업인들은 직접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참여자들은 박물관 관람도 즐기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도 구매하는 관광형 장터다.

봄철 주말 농부장터는 농업박물관 정문 진입로에서 지난 4월 2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5월까지 격주로 총 4회 운영된다. 다양한 농산물 판매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 무료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SNS 홍보 이벤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 운영=농업박물관 내에는 농경문화관, 남도생활민속관, 쌀 문화관 등 상설전시관 3곳과 야외전시장을 운영중이다. 농경문화관은 농경역사실, 농경사계실, 공동체문화실, 미래농업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미래의 농업에 대한 전시와 유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미래농업실에서는 변화하는 미래농업과 관련된 전시, VR(가상현실), 드론, 자율트랙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쌀, 우주와 관련된 3D 영상물도 상영하고 있다. 남도생활민속관에서는 남도의 가옥, 남도의 생활 등 의·식·주, 공예, 신앙유물, 민속문화에 대한 유물과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다. 쌀 문화관은 쌀의 역사, 쌀의 일생, 쌀 문화에 대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며, 남도음식 체험실에서는 남도음식과 관련된 요리실습 및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기획전시실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연날리기의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연(鳶), 민중의 염원을 담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물레방아, 전통초가, 나락두지, 옹기 등 농경관련 시설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여기에 농업박물관은 사계절 꽃피는 화단을 조성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계절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업박물관은 설 명절 민속놀이 체험행사, 전통 모내기 체험, 올벼심니 체험 등 농가월령별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각 계절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 전국 민속 연 날리기 대회 등 농경문화 경연대회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잊혀져가는 민속유산 꾸준히 발굴
농경문화 민속체험 1번지로 도약

임영호 농업박물관장

임영호(62·사진) 관장은 지역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6월 취임했다. 30년간의 언론기관 재직 중 쌓은 경영 관리 능력과 문화관광 홍보 분야 전문역량이 높이 평가된 그는 곧바로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해나갔다. 주말장터를 열어농업박물관을 북적이게 만들었고,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농업문화 실감콘텐츠 구축사업'을 제시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체험프로그램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박물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박물관의 혁신에 성공한 그는 국내 최대·최고 전문농업박물관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농업박물관은 어떤 곳인가.

▲1993년 9월 우리 삶의 근간인 '민족의 혼 농업'을 테마로 영암군 삼호읍 영산호국민관광지 나불도 내에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개관했다. 전통 농도로서의 역사성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농경문화의 산실인 남도의 전통 농경문화 향수를 제공하고 과거 경제 산업 역군이었던 어르신들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전문 농업박물관이다.

- 지금까지 480여만 명이 다녀갔다.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농경문화유산을 수집·보존·관리하면서 쾌적한 공간에 이를 전시한 덕분이다. 조상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 올해 역점 사업을 소개한다면.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문화 실감콘텐츠 구축사업'이 조만간 완공돼 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이 앞으로 농업박물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최신 트렌드 변화에 맞춘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가상 농작물 재배 콘텐츠, AR기반 에듀콘텐츠 등 실감형 전시물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으로,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 지역농업인과 상생협력을 통한 '주말 농부장터'도 확대 운영한다. 농산물 판매부스와 어린이 무료체험 부스를 설치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쌀, 고구마, 무화과 버섯, 절임배추, 땅콩, 장류 등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참여자들은 박물관 관람도 즐기고 싼 값에 농산물도 구매하는 관광형 장터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봄과 가을에 걸쳐 확대 개최,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박물관 운영 방향은.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점차 잊혀져 가는 농업문화 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나가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농업문화 향수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나가겠다. 또 미래형 박물관을 지향하는 동시에 체험과 볼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국내 최대·최고 전문농업박물관의 명성을 이어나가는 한편, 농경문화 민속체험 1번지로 도약해 나가겠다

.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예술 향기가 흐르는 '문화 놀이터'

허백련전·이건희 컬렉션·리움 순회전 등 인기… '전남 방문의 해' 다양한 기획전 준비

개관 1주년 맞은 전남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3월 광양시에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은 경전선이 지나던 옛 광양역사에 자리를 잡았다. 각지로 물자와 승객을 수송하던 기차역에서 이제는 '문화 플랫폼'으로 새롭게 변신한 것이다.

'전남의 풍경을 담다'라는 주제에 맞춰 건물 전면을 통유리로 설계해 날씨와 계절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풍경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게 했다. 내부로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9개의 전시실과 넓은 수장고를 보유했으며 항온·항습·조명 등 전시장 시스템은 국제미술관과 견줄 만한 수준을 갖췄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로 시작한 전남 첫 공립미술관=도립미술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았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미술관을 찾았으며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방문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과 연인 등의 새로운 데이트·나들이 명소로 입지를 다지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한 언급도 활발해졌다.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이었던 전남에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세계 현대미술과의 교류'를 비전으로 삼고 개방성, 혁신성,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남도립미술관의 지향점은 그동안 개막한 전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남 미술사 정립을 위해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에서 한국화의 거장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의 작품세계를 조망했으며, 하반기에는 진도 출신의 서예 명장 소전 손재형 전을 개최한 바 있다.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로랑 그라소', 'AES+F' 등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며 해외 현대미술의 흐름을 전달했다. 특히, 'AES+F'는 국내 최대 단독 대규모 전시로 기획했다. 나아가 지난해 개막한 '태양에서 떠나올 때'는 근현대 시기 및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조망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술과 관련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남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큰 흐름을 관통하는 전시 기획으로 각계각층에서 호평을 이어졌다.

◇'이건희 컬렉션'에 이어 '리움미술관 순회전'까지=지난해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이뤄낸 성과 중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었다. 개관 한 달 만인 지난 4월에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생전 소장 미술품 21점을 기증받았다. 기증작품은 주로 김환기, 천경자, 오지호 등 전남 출신 거장들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만일 도립미술관이 없었다면 기증은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세간에 화제를 일으킨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전이 지난해 9월 개막했다. 개막 첫 주말에만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으며, BTS의 RM이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 뿐만 아니라 전남도립미술관은 개관과 함께 사회 저명인사들로부터 기증 행렬이 이어졌다. 가람화랑의 송향선 대표, 유홍준 교수, 김정헌 작가, 박형선 대표 등의 기증으로 전남 미술사 정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전남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기증이었다. 지난 3월 현재까지 전남도립미술관이 기증받은 작품은 총 49점이다. 아울러 공모와 제안을 통해 지역 공공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작품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현대미술 작품 등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전시 기획 이외에도 전남도립미술관은 연구, 행사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구술채록집 발간,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책 세미나 개최, 국립현대미술관 지원 사업 참여 등 미술사 정립을 위한 미술관 자체 연구 사업과 전남 미술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연계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쳤다.

최근 발간된 구술채록집은 호남화단의 남종화 거장 '남농 허건' 선생에 관한 내용이다. 구술자로는 남농 허건 선생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지원' 공모에 당선돼 전남 출신 지역작가 2인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함양시키고자 전시와 연계한 어린이 활동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관 첫해를 맞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미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이건희 컬렉션' 연계 강의, 'AES+F'와 함께 하는 아티스트 토크, 전남지역 교사 대상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전남 방문의 해 맞아 다양한 기획전시로 새로운 도약 시도=도립미술관의 도약은 올해도 계속된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리움미술관 순회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이 개막했다. 이는 문화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상생에 기여하고자 했던 리움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의 의지가 부합하면서 성사됐다. 전시는 리움미술관의 재개관 기획전시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7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전일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전시가 전남에서 다시 관람객을 맞게 됐다. 2004년 개관한 리움미술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시를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전시는 5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11월 개막해 3월 27일까지 전시한 '태양에서 떠나올 때'는 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풍광을 색채에 집중해 풀어낸 전시로 전남 출신 작가 및 지역 연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도 꾸준히 이어갈 전망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기증전용관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기증전용관은 그동안 기증받은 작품들로 구성된다. '기증'이 가지는 의의와 작품이 지닌 가치를 도민과 나누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하여 사회 저명인사들이 기증한 작품들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뜻깊은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전문가 매칭 사업에 선정된 지역작가 2인(강운, 박치호)의 개인 전시 및 윤재우, 이경모 등 작고 작가의 회고전 등이 계획돼 있다.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싣는다. 최근 미술관 2층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어린이 아뜰리에'를 조성했다. 기존 지하 1층 어린이 아뜰리에가 어린이 활동지 체험을 위한 공간이라면 2층 어린이 아뜰리에는 책과 쉼이 있는 '북아트 갤러리'를 콘셉트로 해 색채와 형태 등을 활용한 더욱 밀도 있는 창작 놀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 해설을 통해 전시 이해도와 관람 만족도를 향상하고,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일 3회 도슨트를 통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대중 문화공간을 형성하고자 끊임없이 도약할 것"이라며 "'소통'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미술관을 만들고 전시 기획, 프로그램 개발, 학술연구 등 지역 공·사립 미술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남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